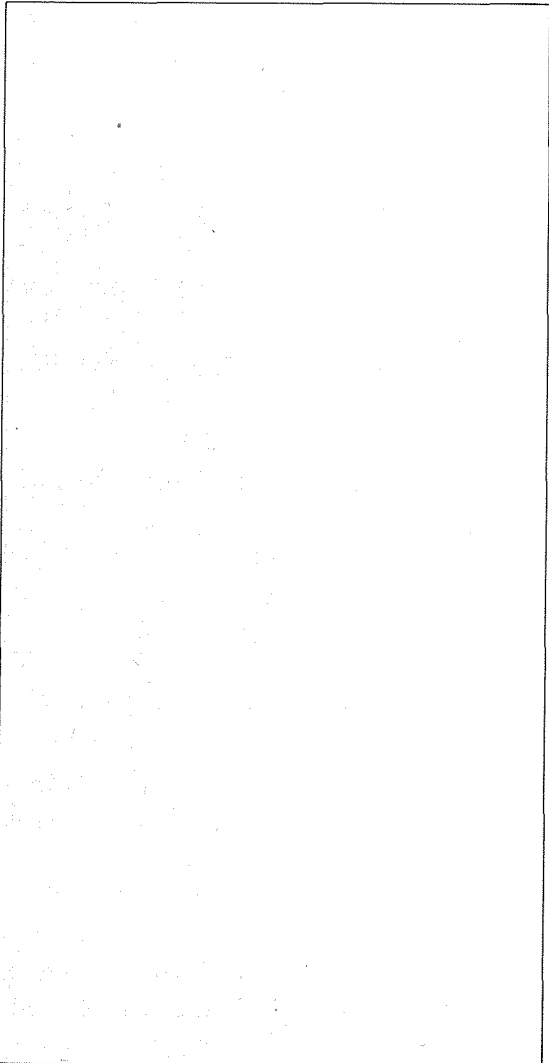


1. 원유의 해외의존

日本은 소요原油의 1% 정도를 국내생산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99% 이상을 해외수입原油에 의존하고 있다. 그 原油공급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색을 가지고 있다.

日本 석유산업의 특징



첫째, 석유자원의 지역적 편재로 말미암아 原油의 中東의존도가 대단히 높다. 1980년 原油수입실적으로 보아 약 70%를 中東 지역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적으로 크게 편중된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높은 中東의존도는 점차적으로 낮아져 최근에는 50%선으로 되었다. 中東지역은 이스라엘과 아랍제국의 대립을 비롯, 민족, 종교를 둘러싼 대립과 국경분쟁이 오랜기간 계속되어 오고 있다. 또 각국의 정치형태도 제각기 달라 정치적으로 지극히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둘째, 석유 자원 보유국들이 OPEC(석유수출국기구)를 형성, 원유의 생산량과 가격의 결정권을 장악함으로써 국제 석유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따라서 日本도 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셋째는, 국제적 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는 국제석유자본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다. OPEC의 잇따른 사업참가와 국유화의 진행 및 소비국과의 原油 직거래등의 증가로 국제 석유자본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저하되었다고 말하나 여전히 原油 생산부문을 장악, 국제석유무역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 連產品 산업

原油에서 특정 석유제품만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原油 처리에 의해 휘발유 유분(휘발유·나프타), 중간유분(등유, 경유, B-A油), 重質油 유분(B-A油, B-C油)등의 각유종이 동시에 생산된다. 그때 각 유종의 收率은 原油의 종류와 장치의 여하에 따라 거의 결정되며,

약간의 변경만을 가할 수 있다.

석유제품의 수요구조는 美國, 日本, 유럽제국에 따라 각각 다르나, 각국모두 그 수출구조는 수요구조를 반영, 정제 프로세스 조합에도 각각차이가 있다. 석유제품이 연산품이라 코스트면에서 석유제품 전체의 종합원가는 계산이 가능하지만, 각제품의 개별 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그 때문에 석유 기업의 수익성은 전제품 합계로서 산정될 수 있으며, 개별제품의 수익성은 타제품과 상대비교해야 결정될 수 있다.

3. 日本석유산업의 구성

석유산업의 형태는 소위 상류부문인 原油생산부문과 하류부문으로서의 수송부문(탱커, 파이프라인등), 가공정제부문, 석유제품 판매부문이 단일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형태를 그 표준으로 삼고 있다. 이와같은 사업형태를 취하는 석유회사를 일관조업, 다시말해 수직적 통합회사라고 부른다.

그런데 日本의 석유산업의 경우, 통상 原油 및 석유제품의 수입·정제·판매에 종사하는 석유회사를 의미하고 석유자원의 개발·생산에 종사하는 석유 개발회사는 별개로 취급하고 있다. 이것은 전후의 “과도 경쟁력 집중배제법”의 시행에 따라 당시 정부 다음으로 제2위의 주주였던 日本石油(주)가 보유하는 帝國石油 주식이 매각(1949)된 이후, 석유회사와 석유 개발회사와는 자본적 관계가 상실되어 각기 사업분야를 달리해 독자적인 길을 걸어오고 있다. 그리고 석유 산업은 전후 세계적인 원유공급 과잉을 배경으로 하여 국제석유자본을 통해 原油를 수입, 정제, 판매하는 것을 주체로 발전해 왔다.

또 현재 日本의 해외개발 원유는 전체 原油수입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을 아라비아 石油(주)와 일본석유 개발이 담당하고 있다. 양사는 재계를 중심으로 한 국가적인 프로젝트로서 설립되었다. 이와같이 日本의 석유산업은 원유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과 해외원유의 수입, 정제, 판매를 주업무로 하는 기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석유회사라고 하면 통상 후자를 의미한다.

4. 소비자 정제주의

해외원유에 의존, 국내석유제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제방식으로 생산지 정제방식, 중간지 정제방식, 소비자 정제방식을 들 수 있다. 제2차 대전 이전은 세계적으로 생산지 정제방식이 주류였으나, 전후 美國의 석유수출 여력이 상실되고 새로운 석유 자원 지역으로서의 중·근동의 등장을 계기로 소비자 정제방식이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다.

日本에서는 전후의 태평양 연안 정유공장 재개와 함께 착수한 국내 정제업 육성책과 外貨할당제도하에서 원유수입을 중심으로한 FOB 가격이 높은 휘발유, 등유, 경유, 윤활유등의 수입억제에 주력, 수급 불균형을 증유의 수입으로 해결하려는 방침을 필두로 해서 석유법도 소비자 정제방식을 전제로 시행, 운용되고 있다. 이것은 전후 日本의 경제부흥의 달성과 아울러 소비자 정제방식의 다음과 같은 잇점에 착안하여 실시되고 있다.

- ① 일반적으로 原油형태로 수입하는 것이 제품을 수입하는 것보다 저렴하므로 석유수입에 외화절약이 가능하다.
- ② 정치정세 기타관점에서 소비지에 정유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공급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
- ③ 소비지의 수요구조에 맞춰 제품수율 구성을 얻을 수가 있다.
- ④ 해외입지에 비해 건설비, 운전경비가 저렴, 코스트 면에서 유리하다.
- ⑤ 원유수송 탱커의 대형화로 비교적 소형인 제품수송 탱커에 비해 운임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다.
- ⑥ 정유공장의 건설은 관련산업의 유치도 조래, 국내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5. 原油 코스트 비증의 증대

原油가격의 급등에 의해 석유제품의 정제판매 종합원가에 차지하는 원유 대금(관세, 금리 기타관련 경비 포함)의 비율은 85% 이상으로 대단히 높다. 원료비의 구성비가 이와같이 고율인 코스트 구조에서 해외 원유 가격 상승에 의한 코스트 상승을 원유대 이외 항목의 코스트 다운에 의해 흡수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정제비, 판매비, 금리등 기타 비용은 앞으로 오히려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해외 原油 가격의 변동은 국내제품 가격에 불가피하게 전가해야 하는 실정이다.

본래 석유산업은 장치산업으로 고정비 비율이 높은것

이 특징이다. 변동비 요소인 原油 가격의 급등에 의해 고가격 원료 가공업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같은 고율의 원재료 구성비율과 그 가격의 해외변동을 경직되게 국내판매 가격에 부득이 전가시켜야 하는 업종은 제조업으로서 그 유례가 없는 특이한 산업이다.

6. 石油수요의 확대와 석유위기후의 정체

日本석유산업의 특징은 경제의 고도성장기에 수요가 현저하게 신장되었으며, 이와같은 수요급증 기간이 장기간 계속되었다. 이와같은 현상은 중화학 공업을 비롯한 제조업 일반에도 널리 나타났으나, 특히 石油에 대해서는 연평균 20%를 상회하는 수요확대가 약 15년간이나 계속되었다.

석유제품은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의 유지,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기초물자이므로 수요팽창에 대응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의 증설은 석유산업이 그 업적에 관계없이 추진해야할 사명으로 등장했다. 이를 위해 기존설비의 확장과 이익에 의한 내부유보의 겨를도 없이 차입금의 증대에 의한 증설이 시도되어 금리, 확장비등의 자본부담으로 석유 산업은 경영악화를 겪어야만 했다.

한편 석유위기후의 석유수요 급감은 매년 수요증가를 예상하고 증설해온 설비를 유휴화시키는, 심각한 영향을 석유산업에 끼쳤다. 석유위기 발생후 通産省에 의한 기허가 설비의 동결조치가 나왔는데, 그후 당시 건설중이었던 정유공장의 신규가동도 시작되어 1974-1975년도의 2년간 석유산업의 가동율은 한층 감소해 81년도의 석유 공급계획(변경후)에서는 60%이하로 간주되어 있다.

이는 자본비용의 상승을 초래해 석유 기업의 수익을 한층 압박함과 함께 업계내의 과당경쟁을 한층 격화시켰고 종전부터 석유산업에 내재하고 있던 정체, 판매 갭을 더욱 확대시켜 판매력에 비해 과다한 설비를 갖고 있는 기업경영을 매우 악화시켰다.

7. 정체·원매업의 편성

日本에서는 석유회사라고 하는 경우 보통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정제·판매에 종사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러한 석유회사는 현재 31개社이다. 이 가운데 특약점, 주유소, 등유판매점 등의 유통기구와 직접판매를 통해

수요자에게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회사는 11개社(元賣 11社라고 함)이다. 元賣11社 가운데 정제를 겸하고 있는 회사는 日本石油, 出光興産, 昭和シェル석유, 九州石油, 제너럴石油, 三菱石油, 코스모石油 등 7개사이고 옛소石油, 키그나스石油, 모빌石油, 共同石油 등 4사는 판매에만 종사하고 있다.

元賣 11社 이외는 정제회사인데 크게 일반정제 회사와 콤비나트 정제회사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정제 회사는 스스로 원유를 수입, 정제해 석유제품을 원매회사에 판매하는 경우와 원매회사가 수입한 原油를 그 원매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정제하는 소위 위탁정제의 2가지 영업형태가 있다. 그중 어느 형태를 취하는 가는 정제회사와 원매회사의 개별 계약에 의해 달라진다.

콤비나트 정제회사는 그중 대부분이 중유, 나프타를 중심으로 하는 석유제품을 인접하는 콤비나트 수요자에게 파이프라인 등을 통해 직접판매하는 소위 자가판매분과 일반정제 회사처럼 원매회사에 석유제품 공급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유, 나프타등 저가의 석유제품 가격체계에 의한 경영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 콤비나트 정제회사에서는 휘발유, 등유, 경유등의 생산비율을 높여 일반정제회사를 지향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이들 元賣 11社와 정제 각사는 자본 제휴 관계, 수·위탁 정제계약, 제품판매계약, 原油공급계약 등을 통해 몇개회사씩 유기적으로 결합, 정제, 판매가 일체를 이룬 기업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8. 외국자본과의 합작

(1) 특 징

日本の 석유산업은 국제석유자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국제석유자본은 日本석유회사와 자본제휴가 없는 경우에도 原油의 공급선 및 설비자금의 차입선으로서 日本석유산업과 깊은 관련을 맺어 왔다.

그렇지만 日本의 석유산업은 국제석유자본의 지배하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반대로 외국 자본과 제휴할 필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예외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다.

전후 외국자본과 제휴할 때도 국제석유 자본의 100% 자회사가 아니고 50% 출자 합작정유회사가 주류를 형성한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서 보아 예외적인 현상이었다.

그리고 국제석유자본은 그의 합작회사 경영에는 통상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정제 및 판매활동도 일본측 석유 회사에 위임했던 것이다. 이것은 日本을 원유시장으로 보고 原油의 안정적 공급선으로서의 합작회사 설립이나 사업제휴를 추진하고 있던 국제석유자본과 전후 부흥을 최우선으로 하여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원유공급원을 추구하는 한편, 경영의 독립성을 유지하려 했던 일본 석유 산업이 기본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주요국에서는 국제석유 자본에 의한 일관조업이 커다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통상이었으나, 日本의 석유 산업 형태는 지극히 예외적이었다.

(2) 외국자본계 기업과 민족자본기업

日本의 석유회사는 原油의 도입과 관련, 전부 어떤 형태로 국제석유자본과 제휴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주식 참가의 형태로 제휴관계 유무에 따라 외국자본계 석유회사와 민족계 석유회사로 나눈다.

외국자본계 석유회사의 주체는 제2차 대전후 日本석유 산업 부흥의 중심이 된 기업군이다. 괴멸 상태에 빠진 日本의 석유산업이 미군 점령이라는 상황에서 원유수입, 부흥자금, 기술낙후 면에서 국제석유 자본의 도입없이는 사실상 부흥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었다. 외국자본과의 제휴 형태는 주식투자, 原油 및 제품 공급계약, 국내제품 판매계약 및 일반기술 원조 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인 것이었는데, 형태는 각각 다르다.

참고로 석유산업의 현상(1980년판)이라는 자료에 의하면, 소위 외국자본계 석유 기업은 다음의 7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 ① 메이저 100% 제휴회사(메이저가 주식의 전부를 보유하는 회사로 日本법인)-앳소石油, 셀石油, 모빌石油
- ② 메이저 직접 제휴회사(메이저 또는 메이저 100% 제휴회사가 그 회사의 주식 1/3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일본석유정제, 흥아석유, 동아연료공

업, 제너랄石油, 昭和石油, 극동석유공업

- ③ 메이저 간접 제휴회사(메이저 직접 제휴회사가 그 회사의 주식 1/3이상을 보유하는 회사)-키그나스石油, 일망석유정제, 남서석유, 쇼와사일시 석유
- ④ 메이저 관련회사(자기가 판매하는 석유 제품의 대부분을 메이저 100% 제휴회사, 직접제휴회사, 간접제휴회사 모두에게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회사)-日本石油, 西部石油, 東亞石油
- ⑤ 인디펜던트 직접 제휴회사(인디펜던트가 그 회사의 1/3이상을 보유하는 회사)-三菱石油
- ⑥ 인디펜던트 간접제휴회사(인디펜던트 직접제휴 회사가 그 회사의 주식 1/3이상을 보유하는 회사)-동북석유
- ⑦ 메이저 관련회사가 그 회사의 주식 1/3이상을 보유하는 회사-일본해석유

민족계 석유회사란 직접주식의 형태로 외자를 도입하지 않았고 자회사로서 합병회사도 설립하지 않은 석유회사이다. 이런 회사들은 현재 석유회사 전체의 약 40%를 차지, 日本정제능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제2차 대전 종료 당시의 정유공장을 갖고 있던 회사는 일본광업·(구)대협석유·(구)丸善石油의 3사 및 전쟁전부터 폐유 재생의 경험을 갖고 있는 태양석유로 1950년도말 日本의 정제능력의 20%를 보유하는 데 불과하다. 따라서 민족계 회사의 대부분은 정제 부문에 새로 참가했고, 1955년경부터 차차 국제 석유 자본과 제휴해 정유공장 건설자금을 도입하고 원유장기 구입계약에 의해 정제부문에 진출했다. 日本의 정제능력의 급격한 발전에 즈음해 외자도입이 유력한 수단인 것은 소위 외국 자본계도 민족자본계도 다름이 없다.

또 산유국의 자원 내셔널리즘의 고양이나 국제석유 자본의 역할 변화등 국제정세의 변동에 따라 石油의 안정공급 관점에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의 의미가 새삼스럽게 검토되기 시작했다. ☐

